

“늦게 핀 꽃이 강렬하다, 박상준이 그렇다”

KIA 박상준,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희망을 봤다

데뷔 15경기만에 첫 홈런 ‘팬心’ 저격...박재현과 ‘양박’ 히트 예감 2022년 육성선수 입단, 4년 만에 찾아온 기회 마침내 존재감 폭발 테이블세터 안성맞춤...좌투수 약점 플레튼 출전 한계 극복 과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또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할 조짐이다. 바로 내야수 박상준이다. 오랜 무명 시간을 지나, 이제는 1군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상준은 지난 19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서 6타수 3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팀 승리를 이끈 맹활약이었다. 1회 1사에서 터뜨린 우월 솔로 홈런은 프로 데뷔 15경기 만에 터진 첫 홈런이자 이날 경기 결승타였다. 6회 말 좌전안타는 KIA 구단 통산 5만1천 번째 안타로 이어졌다. KBO 역대 5번째다.

하루 반짝 활약으로 보기에 최근 상승세가 뚜렷하다.

있었다.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2군에서 보냈고 군 복무도 마쳤다. 긴 시간 1군보다는 퓨처스리그가 더 익숙한 선수였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4할대 맹타를 휘두르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결국 지난달 4일 처음으로 1군 콜업 기회를 잡았다.

초반은 쉽지 않았다. 데뷔 무대 첫 안타는 나왔지만, 4월은 적응의 시간에 가까웠다. 타율은 0.176(17타수 3안타)에 그쳤다. 삼진도 6개였다. 빠른 공과 변화구 대응에서 시행착오가 이어졌다.

5월 들어 페이스가 가팔라졌다. 8경기에서 타율 0.393(28타수 11안타), 4타점을 기록 중이다. 장타율은 0.607, 출루율도 0.452로 끌어올렸다. 2루타 3개와 1홈런을 터뜨렸고, 볼넷도 3개를 골라냈다. 장타력과 함께 선구안도 살아나고 있다.

특히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했다. 타율이 4할대(20타수 8안타)다. 안타 8개 가운데 장타가 3개다. 19일 LG전 결승 홈런 역시 주자가 없을 때 나왔다.

하위 타선보다 2번 타자 성적이 더 좋다. 타율 0.346(26타수 9안타), 출루율 0.414다. 연결 능력과 출루 모두 안정적이다.

다만 투수 유행별 기복은 넘어야 할 과제다. 우투수 상대 타율은 0.375(32타수 12안타)로 준수하다.

반면 좌투수 상대 타율은 0.091이다. 아직 보완할 부분은 남아 있지만, 활용 폭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최근 KIA의 상승세는 1·2번 타선의 반등에서 출발한다. 리드오피 박재현과 함께 박상준이 그 중심에 있다.

아직은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는 “1군은 퓨처스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다. 아직 수비나 경기 운영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육성선수 출신. 긴 2군 생활. 군 복무. 누구보다 늦게 출발한 선수였다. 하지만 올 시즌 조금씩 1군 무대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 광주에서 터진 데뷔 첫 홈런은, 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한 방이었다. /주홍철 기자



KIA 박상준이 지난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의 홈 경기에서 1회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린 후 덕아웃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박상준은 2022년 육성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계약금도, 큰 주목도 없었다.

뜨거웠던 김호령, 하루 세번 호령하다



지난 19일 열린 LG와의 홈경기에서 3홈런을 터뜨린 김호령이 베이스를 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9일 LG전 데뷔 첫 3홈런 폭발...타이거즈 역사상 7번째 대기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야수 김호령이 한 경기에서 홈런 3개를 터뜨리는 기염을 토했다. 데뷔 이후 가장 뜨거운 하루였다.

김호령은 지난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서 7번 타자로 나서 4타수 4안타 3홈런 4타점 4득점 1볼넷으로 맹활약했다.

2회 안타를 때린 그는 4회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터뜨렸다.

시즌 5호 홈런이다. 6회 볼넷으로 출루한 뒤, 7회엔 중앙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8회엔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으로 대기록을 완성했다.

김호령의 1경기 3홈런은 타이거즈 구단 역사상 7번째 기록이다. 해태 시절을 포함해도 쉽게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다.

타이거즈 역대 3홈런은 김성한(해태, 1987년 6월5일 청주 빙그레전)을 시작으로 장재근(해태, 1988년 9월4일 대구 삼성전), 이종범(해태, 1996년 9월13일 무등 OB전), 샌더스(해태, 1999

년 5월31일 무등 삼성전), 김상현(KIA, 2009년 8월8일 군산 SK전), 이범호(KIA, 2018년 8월12일 문학 SK전)가 차례로 기록했다.

그리고 김호령이 그 계보에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KBO 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홈런은 4개다. 타이거즈 소속으로는 아직 한 경기 4홈런 기록이 없다. 그러나 이날 김호령의 폭발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적이었다.

김호령은 올 시즌 43경기에서 타율 0.294, 7홈런, 장타율 0.500, OPS 0.851을 기록 중이다. 특히 장타력이 눈에 띈다.

지난해까지 통산 한 시즌 최다 홈런은 8개였다. 하지만 올해는 시즌 1/3도 지나기 전에 이미 7홈런을 날렸다. 개인 최다 홈런 경신은 시간 문제다.

올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 그만큼 이번 대기록의 의미는 남다르다.

안방에서 터진 3개의 홈런. 김호령에게도, KIA에게도 오래 남을 하루였다. /주홍철 기자

전남도청 장민규, 종별우수선수권 金

배태랑, 장권·도술 ‘銅’...이윤승, 산타-65kg급 ‘銅’

전남도청 우수팀 장민규가 제9회 전국종별 우수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6 우수 국가대표인 장민규는 지난 18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태극권 경기에서 최고 난도의 기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9.64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극권 경기에서는 난도 동작 수행 과정에서 황동(상체 흔들림)에 따른 감점(0.05점)을 받아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배태랑(장권전능)은 장권과 도술 종목에서 C난도 기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윤승도 산타종목 -65kg급 경기에서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합작한 전남도청 우수팀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기대 종목으로 기대를 높였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우수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량과 투혼을 발휘하며 전남 스포츠의 위상을 높여줘 뜻깊게



제9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한 전남도청 우수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생각한다”며 “전남 우수를 대표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게임에 출전하는 김민수의 ‘금빛 선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은행 배드민턴 조송현, 대통령기 혼복 우승

김유정과 팀 이뤄 무실세트 우승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조송현(22)이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2026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조송현은 지난 19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김유정(삼성생명)과 팀을 이뤄 이종민-이유림 조(이상 삼성생명)를 2-0(21-21 21-19)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조송현-김유정 조는 6강부터 결승까지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이며 무실세트 우승을 달성했다.

6강을 기권승으로 출발한 조송현-김유정 조는 32강에서는 추찬(전주시청)-방주영(시흥시청) 조를 상대로 2-0(21-8 21-5) 완승을 거두며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16강에서는 노민우(이천시청)-방지선(화성시청) 조를 2-0(21-15 21-5)으로 제압했고, 8강에서는 신태양-김보령 조(이상 김천시청)를

접전 끝에 2-0(22-20 21-9)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4강에서도 이민서-장하정 조(이상 인천스카이문스)를 2-0(21-16 21-11)으로 꺾은 조송현-김유정 조는 마지막 결승에서 이종민-이유림 조 마저 무실 세트로 제압하며 국내 최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전국체육대회와 더불어 참가 선수들 면면이나 기량을 반영하듯 국내 최고 수준의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 포인트 비중이 큰 만큼 조송현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태극마크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조송현은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게임 대비해 태극 푸켓 켈리지와 마카오 300대회 등에 출전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감독은 “조송현이 중요한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조송현(왼쪽)이 지난 19일 열린 2026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김유정(삼성생명)과 팀을 이뤄 우승을 차지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제공>



전남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우수 프로그램 공유 전문성·서비스 질 향상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2026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일부터 사흘간 전북 완주군과 충남 금산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지도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진작은 물론 지도자 간 정보 교류와 우수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전남 지역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이들은 선진 장애인체육시설 모델인 완주군 만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참관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애인 파크골프 규칙과 장애 유형별 지도 방법에 대한 이론·실기 교육을 통해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곽춘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생활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역량강화 교육이 실질적인 지도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